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7. 21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7/14~7/18)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관세 서한 발송이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감 자극, 안전 통화인 달러 매수심리 확대로 원화 환율 상승 출발. 이어 미국 잇단 관세 압박 속 트럼프의 러시아에 대한 전쟁, 관세 이슈 부각 등이 위험회피 작용하였지만, 장 후반 수출 달러 매도 유입으로 소폭 하락 전환. 중반 들어, 미 6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지난 5월 대비 상승폭 가팔라지며 관세 전가 우려 속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로 환율 상승 이어진 국면. 후반, 트럼프의 연준의장 해임 관련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 영향 미친 가운데, 예상 부합한 6월 CPI에도 관세의 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 확인에 미 국채 금리 상승 등, 연준 금리인하 경로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 점도 달러 강세 견인하며 환율 1,390원 상향. 이어 주 후반, 미 소매판매, 주간 실업수당 관련 고용 지표 호조 등으로 연준이 금리인하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평가에 달러 강세 나타나며 환율 상승 속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소매판매 지표가 여전히 견조했던 가운데 연준내 주요 당국자들간 인하 경로와 현 경로 유지가 엇갈리고 있으나, CPI 등에 대한 관세 전이 효과가 어느정도 확인되며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을 미친 측면 등을 고려 시 달러 강세가 다소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차주 예정인 미국 PMI지표, 실업 관련 지표 등도 다소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도 달러 상승 탄력 요인으로 보임
- 또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엔화 약세 흐름도 달러 강세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내적으로 한은 총재 거시건전성 강화 언급에 따른 연내 금리인하 신중한 모습의 매파성향은 원화 약세 제한 요인이나,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환차손 우려 등에 자본 유출 가능성이 원화 약세 지지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78	1,394.5	1,375.6	1,393	+17.6

예상거래범위

1,385원 ~ 1,400원

유로·엔화 동향 (7/14~7/18)



유로화 동향

- 주초, EU와 멕시코를 상대로 내달부터 30%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도 달러가 보합권에서 머무른 흐름 보인 가운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협상이 열려 있다는 언급 이후 강세로 돌아섬에 따라 유로화 약세 출발한 양상. 이어 미 6월 CPI 결과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품목별 관세 전가의 영향이 확인되면서 금리인하 기대 후퇴 속 달러가치 98 중반대 상승에 따라 유로 약세 지속. 중반 들어, 연준 의장 해임설 등에 의한 달러 가치 약세 전환으로 유로화 일부 강세 회복된 국면
- 후반 들어, 미 소비 관련 지표 호조에도 연준 의장 해임설 여파에 달러가 크게 강세 압력 받지 못했지만, 유로존 6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미국과 관세 협상 이슈 등으로 하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연준 월러 이상의 7월 금리인하 필요성 재차 강조 등으로 달러화가 재차 약세 압력 받으며 유로 강세 전환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87	1.1721	1.1557	1.1621
			-0.0066



엔화 동향

- 초반, 트럼프 행정부 8.1일 EU와 멕시코 30% 관세 부과 발표 후 미국내 물가 상승 우려 속, 엔-캐리 영향으로 엔 상승 출발. 여기에는 관세 문제에 따른 BOJ 금리인상 가능성 후퇴도 영향. 이어, 미 추가 관세 방침에 물가 압력이 커지며 장기금리 상승 영향의 엔-캐리 가능성과 일본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BOJ 금리인상 지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등으로 약세 지속. 중반 들어, 미 6월 CPI가 대체로 시장 예상 부합했지만, 5월보다 전월대비 상승률 확대가 의미 있게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제어한 가운데 트럼프 품목별 추가관세 언급 등이 달러 강세 견인. 후반 들어, 6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금리인하 기대 확산을 반영 달러 약세 흐름에 엔화 강세 보였으나,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정 악화 우려 부각 등으로 레벨을 높인 양상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7.4	149.2	146.8	148.7	+1.36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14~7/18)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35%, EU와 멕시코에 30% 관세 8월부터 부과한다는 서한 공개 영향이 디스인플레이션 제한에 영향 미칠 가운데 연준 금리 인하가 더딜질 수 있다는 우려 반영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 동조화 속,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로 금리 상승 출발. 이어,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재정확대 주장 펴는 야당 선전 가능성에 상승세 나타낸 측면 반영되었지만, 전일 국고채 약세 일부 되돌림되어지며 금리 하락 전환
- 중반,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이 6월 CPI에서 일부 확인되며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 연동 후, 저가 매수 유입 등으로 중·단기 구간 중심으로는 하락 시현. 후반 들어, 트럼프의 연준 의장 해임 관측과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확인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세 이어지며 영향 미친 가운데 한은도 연말로 갈수록 수익률 곡선이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이어 주 후반, 외국인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 영향 등 반영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국이 멕시코, EU 등에 기존보다 높은 30% 관세 부과를 실시했으나, 이미 통보 받은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 제한된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강세 출발. 이어 장 초반 하락 시작되었지만, 주주가치 제고와 증시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등이 하방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강보합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미국 6월 CPI가 관세 영향이 보다 뚜렷해졌다는 평가에 차익 실현성 매물 출회가 촉발되면서 3,2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 전환
- 후반 들어,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연준 의장 해임 관측과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확인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에 위험 선호 위축 속 반도체 업종 하락 충격 등으로 강보합 시현 후, 주 후반, 미 소매판매 호조 등 경기의 견조함 이어지며 뉴욕금융시장에서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만, 코스피는 최근 가팔랐던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니즈 강화 등으로 전일대비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 마감